<h1 style="font-size:21.6px;">나 혼자만 레벨업 : 라그나로크 321화</h1>  
  
  
  
  
  
<p><span style="text-indent:1em;font-size:18px;">[사후의 바다]</span></p>  
  
  
  
<p>칠흑의 바다.</p>  
  
<p>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모두가 말을 잃었다.</p>  
  
  
  
<p>-이건 일종의 보험이다.</p>  
  
  
  
<p>성진우가 말한 보험이 무엇이었는지.</p>  
  
<p>누굴 위한 보험이었는지.</p>  
  
<p>암무트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.</p>  
  
<p>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.</p>  
  
<p>[허! 네 아들이 스스로 사후의 바다를 찾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더냐.]</p>  
  
<p>네놈은 정말이지…….</p>  
  
  
  
<p>-네가 원한다면, 너도 이제 얼마든지 그림자 병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.</p>  
  
<p>-너와는 상관없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.</p>  
  
  
  
<p>다시금 성진우의 환영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오른다.</p>  
  
  
  
<p>디버프, ‘죽음’.</p>  
  
  
  
<p>사후의 바다에 들어온 순간.</p>  
  
<p>이 일대를 지배하고 있는 끔찍한 기운은 아르샤와 그레이의 생명력을 실시간으로 앗아 가고 있었다.</p>  
  
<p>물론 암무트라고 예외는 아니었다.</p>  
  
<p>암무트는 칸디아루와의 계약으로 영원히 죽지 않게 된 존재였다.</p>  
  
<p>수명을 뛰어넘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존재였다.</p>  
  
<p>단, 지금은 강체술 훈련소라고 불리는 그 망할 피라미드 안에서만!</p>  
  
<p>환계의 대주술사 칸디아루가 그림자 권능을 연구하던 중에 탄생한 실험체가 바로 암무트의 진정한 정체.</p>  
  
<p>죽었으나 죽지 않은, 오래전 성진우가 상대했던 ‘악마왕 바란’을 모방해서 만든 영혼의 찌꺼기와 비슷한 상태였던 것이다.</p>  
  
<p>그렇기에 암무트는 생명체인 아르샤와 그레이와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.</p>  
  
<p>암무트에게 이곳 사후의 바다는 그저 편안했다.</p>  
  
<p>오히려 너무 안락하고 나른해서 당황할 정도였다.</p>  
  
<p>이 검은 바닷속에 둥둥 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었으면 하는 감각이…….</p>  
  
<p>자신의 영체가 통째로 이 심연의 바닷속으로 녹아들었으면 하는 나긋한 기분이…….</p>  
  
<p>[소름이 끼치는군.]</p>  
  
<p>그야말로 치명적인 유혹이었다.</p>  
  
<p>오랫동안 죽음을 유예해 왔던 자신의 ‘영혼’이 스스로 죽음을 갈구하고 있었다.</p>  
  
<p>[그게 이런 말이었나.]</p>  
  
<p>암무트는 이를 갈며, 억지로 그 달콤하고 나른한 유혹에 저항했다.</p>  
  
<p>동시에 자신의 앞에 나타났던 성진우의 환영이 짓고 있던 표정을 떠올리며.</p>  
  
<p>[……내가 원한다면, 얼마든지 그림자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것.]</p>  
  
<p>참으로 괘씸한 놈이로다.</p>  
  
<p>자신의 ‘죽음’이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있었다.</p>  
  
<p>죽은 자들 입장에서 그림자 병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.</p>  
  
<p>얼마나 환상적인 일인지!</p>  
  
<p>……벌써부터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!</p>  
  
<p>[그저 감탄만 나오는군.]</p>  
  
  
  
<p>암무트는 진심으로 감탄했다.</p>  
  
<p>성진우.</p>  
  
<p>그조차도 마력 한 줌 없이 고작 환영으로만 나타났던 그는 정녕…….</p>  
  
<p>그 짧은 시간에 대체 어디까지 앞날을 내다보고,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대비했던 것인지.</p>  
  
  
  
<p>피식.</p>  
  
  
  
<p>암무트가 킬킬거리며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.</p>  
  
<p>[보기보다 유쾌한 놈이었군. 나와는 상관없다더니, 이런 짓궂은 장난질을 쳐?]</p>  
  
<p>진짜 어처구니없는 놈 아닌가.</p>  
  
<p>그날의 성진우는 진짜 여기까지 생각했던 걸까?</p>  
  
<p>자신이 그의 말을 안 듣고, 제 발로 이곳까지 직접 찾아올 것을?</p>  
  
<p>아니라고 말하기엔, 눈앞에 놓인 선택지가 뚜렷하게 자신을 반겨 주고 있었다.</p>  
  
<p>자신이 누구던가!</p>  
  
<p>최강, 최흉의 악어 요인 크로커!</p>  
  
<p>요인들의 왕, 강체의 군주에게 강체술을 가르친 자!</p>  
  
<p>하지만 지금은 이렇게…….</p>  
  
<p>진즉 죽어 버린 망령이자, 환계의 주술 따위에 꽁꽁 묶인 노예로 전락한 영혼의 찌꺼기였다.</p>  
  
<p>하지만 그런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사후의 바다에 도착해 버린 순간.</p>  
  
<p>암무트는 ‘두 가지 선택지’ 중에 하나를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.</p>  
  
  
  
<p>하나는 빠르고 쉬운 길.</p>  
  
  
  
<p>‘순종’</p>  
  
  
  
<p>이대로 편안히 바닷물에 녹아들어, 수호의 그림자 병사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.</p>  
  
<p>사실 이보다 달콤한 선택지는 없으리라.</p>  
  
<p>그야말로 불사의 영혼이 되어, 영원토록 끝도 없는 강함을 추구할 수 있을 테니까.</p>  
  
<p>하지만 나머지 하나가 문제였다.</p>  
  
<p>다른 선택지, 어렵고 오래 걸리는 길.</p>  
  
  
  
<p>‘굴욕’</p>  
  
  
  
<p>그 선택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아 버린 암무트는 실실 웃을 수밖에 없었다.</p>  
  
<p>[정말 어지간한 놈이군. 내 스스로 순종과 굴욕 중에 고르라고 하다니.]</p>  
  
<p>성진우의 의도가 다분히 괘씸해서.</p>  
  
<p>하지만 그 또한 자신을 위한 배려라는 걸 알기에 썩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.</p>  
  
<p>그리고 상황을 보니, 급하게 결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.</p>  
  
<p>[아, 암무트 님……!]</p>  
  
<p>[꾸르릉! 끼잉……!]</p>  
  
<p>옆에서 들리는 비명에, 암무트가 시선을 돌려 그들을 봤다.</p>  
  
<p>검은 바다를 허우적거리는 아르샤와 그레이.</p>  
  
<p>자신과는 달리 저 둘은 실시간으로 생명력이 죽어 가고 있었다.</p>  
  
<p>이곳은 생명체에게 더없이 가혹한 사후의 바다였으니까.</p>  
  
<p>[……일단 이놈들부터 살려 주고 선택해도 늦지 않겠지.]</p>  
  
<p>암무트는 일단 자신을 따라온 철부지들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로 했다.</p>  
  
  
  
<p>덥석! 덥석!</p>  
  
  
  
<p>암무트의 거대한 손바닥이 아르샤와 그레이의 뒷덜미를 각각 붙잡았다.</p>  
  
  
  
<p>그리고 최강의 악어 요인, 크로커답게 능숙하게 검은 물살을 헤치며 사후의 바다를 헤엄치기 시작했다.</p>  
  
<p>그러자 그 앞에 생명체의 냄새를 맡고 몰려든 심연의 괴물들이 앞다투어 튀어나왔다.</p>  
  
  
  
<p>캬아오!</p>  
  
<p>키키키키키!</p>  
  
  
  
<p>[비켜라.]</p>  
  
<p>암무트는 무심하게 놈들을 후려쳤다.</p>  
  
  
  
<p>푸콰쾅!</p>  
  
  
  
<p>검은 바다가 폭발했다.</p>  
  
<p>잔잔하던 검은 바닷물 위로 거친 파도가 비산했다.</p>  
  
<p>그 검은 소용돌이에 앞을 막아선 모든 것들이 찢겨 나갔다.</p>  
  
  
  
<p>‘강체술’</p>  
  
  
  
<p>비록 암무트가 수호에게 매일매일 강체술 훈련을 빙자한 고문, 아니 체력 단련을 시키고 있었지만.</p>  
  
<p>사실 강체술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육신의 강화가 아니었다.</p>  
  
<p>육체를 끝도 없이 깨뜨리고 박살 내고 이어 붙여, 그 끝에는 그 안에 있는 영혼마저 강화시키는 것.</p>  
  
  
  
<p>‘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든다’</p>  
  
  
  
<p>인간들의 명언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무식한 수련법이 바로 강체술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.</p>  
  
<p>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암무트가 바로 그 까마득한 경지의 정점이었으니.</p>  
  
  
  
<p>[꺼져라.]</p>  
  
  
  
<p>투콰콰콰콰쾅!</p>  
  
  
  
<p>……누구도 암무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다.</p>  
  
<p>영혼의 찌꺼기를 먹고 성장한 틈새의 주민들도.</p>  
  
<p>집요하고 지독한 사후의 잡초들도.</p>  
  
  
  
<p>쿠콰콰콰콰콰콰!</p>  
  
  
  
<p>그렇게 암무트는 거침없이 사후의 바다를 제집처럼 누비며 활개 치고 있었다.</p>  
  
<p>하지만.</p>  
  
<p>[꾸르릉…….]</p>  
  
<p>[흠.]</p>  
  
<p>암무트는 자신의 등에 매달린 그레이의 낑낑대는 소리를 듣고, 빠르게 사방을 탐색했다.</p>  
  
<p>이러니저러니 해도, 결국엔 디버프, ‘죽음’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다.</p>  
  
<p>이 녀석들이 모든 생명력을 빼앗기기 전에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다.</p>  
  
<p>그런데 과연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?</p>  
  
<p>아니, 있다 하더라도 이 터무니없이 넓은 망망대해에서 그런 곳을 찾을 수 있을까?</p>  
  
<p>[끼우웅…….]</p>  
  
<p>항상 팔팔하게 살랑거리던 그레이의 꼬리가 시시각각 축축 처졌다.</p>  
  
<p>그보다 더 약해 빠진 아르샤는 말할 것도 없었다.</p>  
  
<p>고통스럽기는 여기까지 오는 검은 기둥 안이 훨씬 심했으나, 이 사후의 바다에서는 아무런 고통조차 없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혼은 ‘죽음’에 가까워지고 있었다.</p>  
  
<p>이것이 바로 ‘순종’이다.</p>  
  
  
  
  
  
<p>캬아오-!</p>  
  
  
  
<p>그리고 그럴수록 더더욱 격렬하게 몰려드는 심연의 괴물들이 온 사방에서 악어처럼 입을 쫙쫙 벌렸다.</p>  
  
<p>감히…… 악어 요인 앞에서 말이다.</p>  
  
<p>[조금만 참거라!]</p>  
  
<p>암무트는 그 모든 잡것들을 물리치고 검은 바닷물을 더더욱 빨리 가로질렀다.</p>  
  
<p>서서히 죽어 가는 두 짐짝을 둘러메고.</p>  
  
<p>그 끝에 뭐라도 나올 때까지.</p>  
  
<p>그때, 아르샤의 기운 없는 목소리가 암무트의 귓가에 들려왔다.</p>  
  
<p>[추위……. 추운 곳을 찾으셔야 해요…….]</p>  
  
<p>[안다. 찾고 있다.]</p>  
  
<p>아무리 수호가 밖에서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어도, 그는 일일 퀘스트 때문에 암무트를 매일같이 찾아온다.</p>  
  
<p>그렇기에 시르카가 최근에 설인들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도.</p>  
  
<p>덕분에 무인도는커녕 발 디딜 틈도 없는 이 바다 위에 혹한의 추위가 찾아왔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암무트에게도 공유되고 있었다.</p>  
  
<p>그래서 암무트는 아까부터 디버프 ‘죽음’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추운 곳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이다.</p>  
  
<p>그런데 그 말은 결국.</p>  
  
<p>이 드넓은 영체 우주, 터무니없이 넓은 망망대해에서 단신으로 세계수를 찾아내야 한다는 말과도 같았다.</p>  
  
<p>그것도 최대한 빨리.</p>  
  
<p>아르샤와 그레이가 죽기 전까지.</p>  
  
<p>그건 정말 막연하고 답답한 일이었기에, 암무트는 더더욱 가차 없이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박살 내며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.</p>  
  
<p>이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일이었다.</p>  
  
<p>아무리 그레이가 코를 킁킁대도 후각에 걸리는 냄새가 전혀 없었으며.</p>  
  
<p>그렇다고 아르샤가 힘을 쥐어짜 일벌을 몇 마리 만들어 내서 정찰을 보내 봤자…….</p>  
  
  
  
<p>툭.</p>  
  
  
  
<p>아르샤의 일벌 따위는 디버프 ‘죽음’ 앞에서 순식간에 죽어 버릴 뿐이었다.</p>  
  
<p>[죄송해요. 제 일벌이 또 죽어 버렸어요…….]</p>  
  
<p>[쓸데없는 일에 힘쓰지 마라.]</p>  
  
<p>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.</p>  
  
<p>얼마나 사후의 바다를 떠돌았을까.</p>  
  
<p>기적을 기대하기엔 절망적인 상황에서.</p>  
  
  
  
<p>휘이잉-</p>  
  
  
  
<p>착각인가?</p>  
  
<p>불현듯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온 기분이었다.</p>  
  
<p>하지만 그조차도 실낱같은 희망이었으니!</p>  
  
<p>[크륵! 어디냐!]</p>  
  
<p>암무트가 그 방향을 찾으며 눈을 부라렸다.</p>  
  
<p>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‘추위’는 존재하지 않았다.</p>  
  
<p>그와는 전혀 다른 것.</p>  
  
<p>저 멀리, 망망대해의 끝에서 아스라이 무언가의 실루엣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.</p>  
  
  
  
<p>……!</p>  
  
  
  
<p>그 모습을 확인한 순간.</p>  
  
<p>사경을 헤매던 아르샤와 그레이의 숨통이 탁 트이며 눈빛이 돌아왔다.</p>  
  
<p>암무트의 입꼬리도 길게 찢어졌다.</p>  
  
  
  
<p>[하여간 지독하게 느려 터진 놈들이군.]</p>  
  
<p>기다릴 시간도 부족했다.</p>  
  
<p>암무트는 있는 힘을 다해 ‘놈들’을 향해 헤엄쳤다.</p>  
  
<p>그러자 빠른 속도로 그 작았던 실루엣이 커지고 가까워졌고.</p>  
  
<p>[……찾았습니다!]</p>  
  
  
  
<p>우와아아아!</p>  
  
  
  
<p>함성이 터져 나왔다.</p>  
  
<p>암무트가 아닌, 암무트를 발견한 쪽에서.</p>  
  
<p>그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…….</p>  
  
  
  
<p>‘엘븐우드, 악마들의 함대’</p>  
  
  
  
<p>바로 악마족들이 안타레스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듣고, 암무트 일행을 샅샅이 찾아서 사후의 바다를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.</p>  
  
<p>[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!]</p>  
  
<p>[빨리 건져 올려!]</p>  
  
  
  
<p>촤악! 촤아악!</p>  
  
  
  
<p>악마들이 다급히 소리치자, 그림자 거미들이 거미줄을 그물처럼 뿌려 암무트 일행을 건져 올렸다.</p>  
  
<p>그사이에도 주변에서 덤벼드는 심연의 괴물들을 막아 내는 악마들.</p>  
  
<p>그 광경을 눈에 담은 암무트가 작게 감탄했다.</p>  
  
<p>[그동안 꽤 강해졌군.]</p>  
  
<p>예전에 암무트가 저 악마들을 처음 봤을 때만 해도, 저들은 형편없이 약한 미물들이었다.</p>  
  
<p>당연했다.</p>  
  
<p>어지간한 놈들은 전쟁 속에서 다 죽고 남은 잔챙이들이 바로 저 악마들이었으니 말이다.</p>  
  
<p>그런데 수호의 명령에 저들이 사후의 바다를 떠도는 사이에 정말 몰라볼 정도로 강해져 있었다.</p>  
  
<p>그리고 그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다.</p>  
  
<p>[아르샤 님! 이걸 드십시오!]</p>  
  
<p>[그레이 님! 이 잎사귀를 얼른 씹어 삼키십시오!]</p>  
  
  
  
<p>바로 ‘세계수의 잎사귀’!</p>  
  
<p>악마들이 생명력이 고갈된 아르샤와 그레이의 입에 세계수의 잎사귀를 서둘러 먹이기 시작한 것이다.</p>  
  
<p>참고로 세계수의 잎사귀는 수호가 상점에서 구매하는 ‘포션’의 주재료.</p>  
  
  
  
<p>와삭와삭!</p>  
  
  
  
<p>잎사귀를 먹을수록 아르샤와 그레이의 눈에 생기가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.</p>  
  
<p>그런데 문제는 그 양이었다.</p>  
  
<p>[세계수를 찾아냈다더니…….]</p>  
  
<p>갑판 위에 털퍼덕 주저앉아 그 모습을 본 암무트는 허탈하게 웃었다.</p>  
  
<p>악마들이 그 진귀한 세계수의 잎사귀를…… 두 손 가득 수북하게 들고 있었던 것이다.</p>  
  
<p>[그리고 언제 이렇게…….]</p>  
  
<p>그저 감탄만 나올 뿐이었다.</p>  
  
<p>암무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.</p>  
  
<p>작은 뗏목 하나.</p>  
  
<p>엘븐우드를 대충 썰어서 임시방편으로 만든 작은 뗏목 위에 타고 무작정 사후의 바다로 떠났던 악마들의 배가…….</p>  
  
<p>어느새 이렇게나 거대한 함선으로 커져 있었던 것이다.</p>  
  
<p>심지어 한 척도 아니었다.</p>  
  
  
  
<p>[모두 연락을 돌려라! 찾았다고!]</p>  
  
<p>[모여라!]</p>  
  
<p>[세계수로 돌아간다!]</p>  
  
<p>그렇게 악마들의 왕, 탐식의 군주 에실이 다스리는 악마족들.</p>  
  
<p>에실의 혈정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악마들의 배가 점점 이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.</p>  
  
<p>그러자 그 위세가 엄청났다.</p>  
  
<p>사후의 바다에서 악마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틈새의 주민들도.</p>  
  
<p>바닷속을 떠돌며 생명체를 탐하는 사후의 잡초들도.</p>  
  
<p>이 거대한 선단 앞에서는 감히 다가올 생각도 못할 정도였다.</p>  
  
<p>섣불리 다가갔다간, 이 선단의 용골을 담당하는 엘븐우드가 반대로 놈들을 잡아먹기 위해 뿌리를 뻗쳤으니까.</p>  
  
<p>그렇게 모든 배들이 한곳에 모이자…….</p>  
  
  
  
<p>파앗!</p>  
  
  
  
<p>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앞에 거대한 게이트가 열렸다.</p>  
  
  
  
<p>[모든 악마들이여! 내 앞으로 집결하라!]</p>  
  
  
  
<p>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암무트가 씨익 웃었다.</p>  
  
  
  
<p>‘스킬, 지옥의 군세‘</p>  
  
  
  
<p>악마들의 왕이 여기에 있나니, 왕이 있는 곳이 곧 악마계로다.</p>  
  
<p>수색할 때야 흩어졌으나, 이미 목표물을 찾았으니 돌아갈 때는 굳이 이 망망대해를 귀찮게 직접 건너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.</p>  
  
  
  
<p>번쩍!</p>  
  
  
  
<p>악마들의 왕이 친히 만들어 준 게이트를 통해, 암무트 일행을 태운 모든 악마들의 배가 그 포탈을 넘어갔다.</p>  
  
<p>그러자 그 순간.</p>  
  
  
  
<p>후와아악-!</p>  
  
  
  
<p>혹한의 추위가 닥쳐왔다.</p>  
  
<p>그리고 그들 앞에 하얗게 서리가 낀 세계수가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다.</p>  
  
<p>그저 전설로만 치부되던 사후의 바다.</p>  
  
<p>그 어딘가에 존재한다던 세계수가 너무나도 쉽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.</p>  
  
<p>그리고 그 중심에서.</p>  
  
<p>악마들의 왕, 탐식의 군주 에실 라디르가…….</p>  
  
  
  
<p>[그어어어어어!]</p>  
  
  
  
<p>……!</p>  
  
  
  
<p>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.</p>  
  
<p>때마침 세계수를 타고 내려온 거대한 뱀, 다섯 개의 머리를 지닌 니드호그를 상대로!</p>  
  
<p>그 모습을 본 악마들이 여기저기서 투지를 불태웠다.</p>  
  
  
  
<p>[니드호그가 또 나타났다!]</p>  
  
<p>[왕께서 맞서 싸우신다!]</p>  
  
<p>[마력포를 쏴!]</p>  
  
  
  
<p>[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게 해 주마!]</p>  
  
  
  
<p>쿠콰콰콰쾅!</p>  
  
  
  
<p>그렇다.</p>  
  
<p>에실을 따르는 모든 악마족들은 세계수를 찾아냈다.</p>  
  
<p>하지만 그렇다고 세계수를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다.</p>  
  
  
  
<p>[세계수의 뿌리를 갉아 먹는 뱀, 니드호그]</p>  
  
  
  
<p>그어어어어어!</p>  
  
<p>캬아아오오오오!</p>  
  
  
  
<p>이곳엔 틈만 나면 뿌리 쪽으로 내려오는 니드호그가 살고 있었으니까!</p>  
  
<p>니드호그가 그 거대한 몸을 요동칠 때마다 세계수의 잎사귀가 나풀나풀 떨어지고 있었지만.</p>  
  
<p>그 잎사귀들을 주워 먹기 위해선, 니드호그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것이 우선이었다.</p>  
  
<p>[흐흐. 제기랄. 저 약해 빠진 것들이 언제 저렇게…….]</p>  
  
<p>그 모습에 암무트는 껄껄 웃고 말았다.</p>  
  
<p>저 터무니없이 거대한 심연의 괴물 니드호그를 상대로도 당당히 맞서 싸우는 악마족들을 보면서.</p>  
  
<p>호승심이……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.</p>  
  
<p>[제기랄. 이러건 걸 봐 버리면 몸이 근질거린단 말이다.]</p>  
  
<p>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.</p>  
  
<p>성진우의 환영이 자신에게 제시한 두 개의 선택지 중 두 번째.</p>  
  
<p>어렵고 오래 걸리는 길.</p>  
  
  
  
<p>‘굴욕’</p>  
  
  
  
<p>분명히 어렵긴 한데, 수호 그놈 덕분에 여기까지 오는 길이 오래 걸리진 않았으니…….</p>  
  
<p>[오냐! 내 기꺼이 굴욕을 감수해 주마!]</p>  
  
  
  
<p>쿠왕-!</p>  
  
  
  
<p>그는 결국 갑판을 박차고 높이 뛰어올랐다.</p>  
  
<p>악마들과 싸우고 있는 니드호그를 향해.</p>  
  
<p>아니, 강체의 군주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태초의 어둠을 향해.</p>  
  
<p>[크하하하! 참으로 굴욕적이구나!]</p>  
  
  
  
<p>투쾅!</p>  
  
  
  
<p>강체술의 스승.</p>  
  
<p>암무트가 태초의 어둠을 품은 니드호그의 거대한 아가리를 후려쳤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